‘예술로 모임’ 맞춤형 동호회 활동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예술동호회 · 코디네이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도내 주민들의 예술공동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술로 모임’ 예술동호회와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인 ‘예술로 모임’은 도민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건강한 예술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 간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원지도 시스템(jbctedu.com)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예술동호회만 지원가능하다.

재단은 전라북도 거주 구성원 3인 이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50팀을 선정해 교육 사업 및 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동호회 활동 현장 모니터링과 행정 지원 등 결속 및 확장을 위한 코디네이터도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술동호회’는 청년형, 배움형(신규), 자람형(기존) 3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형은 도내 거주 만 19~39세 청년으로 구성된 동호회, 배움형은 조직 연차 2년 이하이거나 새내기 동호회, 자람형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조직 3년 이상 동호회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각 300만원 내외며, 사업신청서에는 1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도내 주민들의 예술공동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술로 모임’ 예술동호회와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

‘코디네이터’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문화예술교육자·문화예술 전공자·문화예술 및 문화기획 경험자·SNS 활용 홍보 경험자 등을 우대 선발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예술로 모임’은 주민들이 예술 감상을 넘어 적극 참여하는 예술공동체 사업이다”며, “향후 주민 네트워크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킹스턴 루디스카 with 김제’

김제문화예술회관, 31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31일 오후 7시 30분 2021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첫 공연으로 ‘킹스턴 루디스카 with 김제’를 선보인다.

각양각색 개성을 지닌 8명의 멤버가 ‘스카(Ska)’라는 이름 속에서 한 숨결로 하모니를 이뤄내는 킹스턴 루디스카는 올해로 데뷔 17년 차인 중견 뮤지션으로 자메이카에서 파생된 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어 연주하는 정통 브라스 스카밴드이다.

이번 공연은 자메이카 스카(SKA)의 발랄한 리듬 위에 애잔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네 ‘한(恨)’의 정서와 맞닿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50%의 객석을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31일 오후 7시 30분 2021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첫 공연으로 ‘킹스턴 루디스카 with 김제’를 선보인다.

예매는 23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열두 동물의 84가지 이야기, 정종진 ‘속담 우화집’

우리 민족이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한 속담 중 열두 띠 동물과 관련한 이야기가 우화로 창작됐다.

정종진 청주대 명예교수가 ‘속담 우화집’을 펴냈다.

‘속담으로 엮어낸, 열두 동물의 84가지 이야기’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열두 띠 동물을 소재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거나 생태적 사상을 제시했다.

자(쥐), 축(소), 인(호랑이), 묘(토끼), 진(용), 사(뱀), 오(말), 미(양), 신(원숭이), 유(닭), 술(개), 해(돼지) 등 12지 동물과 관련한 속담 일곱 가지씩을 이야기로 만들었다.

정 교수는 “모든 동물은 다 생각할 줄 알고 자기들의 말로 표현도 한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동물을 마음껏 부리고 잡아먹는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며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게 되려면 인간이 다른 생명의 몸짓과 말을 더욱 이해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양 우화집은 동물을 등장시켜 빗대는 방법으로 인간을 말해왔다. 인간이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수많은 우화로 오랜 세월 인간을 각성시키고 누구도 결코 얕볼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준다”고도 했다. /뉴시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원지회 남원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남원춘향장학재단은 18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회(회장 류영근)가 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창립 37주년을 맞은 남원예총은 문인, 무용, 사진, 국악, 음악, 연예, 미술협회로 구성되어 예향 남원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기탁식에서 류영근 회장은 지역의 내일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춘향장학재단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에 이환주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기금을 기탁한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BTS는 어떻게 세계적 스타가 됐나

‘K-pop 라이브 웨비나’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20일 개최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벨기에 아미(ARMY)와 현지 미디어를 초청해 ‘K-pop 라이브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 웨비나는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현지 케이팝 팬들과 함께 기획한 온라인 한류 행사다.

BTS의 세계적인 부상과 같은 ‘글로벌 케이팝 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답론을 벌이기 위해 기획됐다.

3월 초부터 온라인 참가 접수를 한 결과 17일 기준 200여 명이 신청했다.

이 온라인 행사에는 음악평론가이자 ‘BTS: 더 리뷰(2019)’의 저자인 K-pop 전문가 김영대 박사가 초청돼 방탄소년단이 이루어 낸 성과들과 이를 통한 세계적 케이팝 현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대 박사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진단하면서 BTS를 중심으로 K-pop의 세계적인 부상을 분석하고, 한국대중음악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 패널로는 벨기에 인기 유튜버 듀오 디퍼런틀리 얼라이크, 프랑스어권 한류 전문 잡지 ‘K! 월드 메거진(K! World Magazine)’의 편집장 뤼실 떼오포 데포테, 벨기에 대중음악 메거진 뉴스멍키의 케이팝 전문기자 울리케 반 담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벨기에 ARMY 회원 및 현지의 대표적 한류 동호회인 ‘케이팝 벨지움(K-pop BELGIUM)’ 회원들도 참여해 유럽의 K-pop 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개최 예정인 이번 ‘KPOP 라이브 웨비나’는 벨기에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웨비나를 중계할 예정이다.

‘K-LIVE 웨비나’는 20일 오후 7시부터 9시(브뤼셀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벨기에 한류 동호회 누에프 대표 소피 반덴브로이크의 사회로 개최된다.

웨비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https://forms.gle/juY5TyDmUdJVuZga7)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